

## 미 국무부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파룬궁 박해 주목

[밍후이왕] 미 국무부는 2018년 5월 29일 (현지시간) '2017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을 종교의 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특별우려대상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다시 지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파룬궁(法輪功), 기독교 등의 단체가 박해 받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미국은 방관자로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국무부 장관 "종교 침해 행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 뉴스 브리핑에서 "'양심은 모든 재산 중 가장 신성한 것' 이라고 한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전 대통령의 말처럼 종교의 자유는 전 미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마이크 폼페오의 금년 7월 25~26일, 미 국무부는 최초로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외교부장관급 국제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 신장을 위한 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오의 말했다. "이 회의는 우리들이 새로운 국면을 창조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간단한 소조 토론이 아니다. 미국은 국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도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의 목적은 모든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중국내 불교신자, 기독교인과 파룬궁수련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뉴스 브리핑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종교적 자유가 하락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 박해로 사망한 양위웅(楊玉勇) 등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인에 주목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사망한 대륙의 파룬궁수련인에 주목하면서 "파룬궁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해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인들이 수감 기간 중 박해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룬궁사이트 '밍후이왕(明慧網)'의 보도를 인용해 "2017년에 42명의 수련인들이 수감 중 사망했거나 또는 수감 기간 중 받은 학대로 출소 후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히 파룬궁수련인 양위웅(楊玉勇)과 한홍샤(韓紅霞)가 당한 고문사례를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인 양위웅(楊玉勇)은 7월 경찰측에 구금 기간 중 사망했다."

양위웅은 2016년 12월 텐진 당국에 체포됐으며, 감금 기간, 13명

의 죄수들이 달려들어 그의 생식기를 주무르고 유두를 물어뜯는 등 성폭행을 포함해 심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의 기관은 완전히 쇠퇴해졌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 시신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고 발톱 사이에 대나무 꼬챙이로 찌른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가족은 증언했다."

"양 씨의 아내 멍쉬안전(孟宪珍)은 남편과 함께 체포된 후 2017년 말까지 여전히 수감돼 있다."

"밍후왕 보도에 따르면, 수련인 한홍샤(韓紅霞)도 2017년 3월 구금 기간 중 사망했다. 그녀는 지린(吉林)성 다안(大安)시 현지 안전 요원들에 의해 2016년 10월 체포됐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바이청(白城)시 구치소 경찰은 파룬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고문을 가했다."

### 홍콩 파룬궁 수련인에 주목

보고서 홍콩 부분에서는, 홍콩 파룬궁수련인들이 현지에서 개최한 활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6월 시진핑 홍콩 방문 기간 중, 파룬궁수련인들은 현수막과 진상판을 펼치고 파룬궁 박해 중단과 장쩌민을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공산당의 '적색 자금'이 홍콩에 침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홍콩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측은, 중공이 배후에서 돈으로 개인 단체를 매수해 그들이 파룬궁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파룬궁수련인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떠들며 공격하도록 사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영화 ‘비밀번호’, 캐나다 국제영화제 최고상 수상

[명후이왕] 3월 20일, 신세기영화 제작기지의 첫 개봉작품인 ‘비밀번호’는 캐나다 국제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 ‘최고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밀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편한 것이다. 영화는 생체장기적출 현장을 목격한 중국경찰이 제공한 실제 사건을 취재했으며 컴퓨터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을 둘러싸고 펼쳐졌다. 다 방면의 힘겨움에서 정과 사, 선과 악의 거름을 거쳐 최후 파룬궁수련자와 정의인사들이 공동으로 중공의 박해를 폭로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이미 긴 19년이 지났다. 무수한 파룬궁수련생들이 핍박으로 사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불법 징역을 당하고,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까지 당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박해 속에서 여전히 견정한 신념으로 지혜를 발휘해 부단히 진상을 전달하고, 선량한 민중을 깨어나게 했다. 이 20년의 박해와 반박해, 정의와 사악의 거름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의 선행은 한쪽 또 한쪽의 그림을 이루었고, 한 인물 또 한 인물의 이야기가 한 장면 또 한 장면의 깊고, 견실하고, 처절한 장편영상으로 모아졌다. 영화 ‘비밀번호’는 그 중 한 단락을 보여줬다.

캐나다 국제영화제 (Canada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 ■ 영화 ‘비밀번호’의 한 장면

종지는 전업 영화제작인을 장례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90여 개 나라에서 온 작품에서 입선할 영화를 선정하는데 ‘최고상’은 모든 입선 영화에서 일위를 차지한 영화에 수상하는 상이다. 이 영예를 ‘비밀번호’가 받았다.

‘신세기영화제작기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2017년에 설립됐다. 종지는 ‘진(眞)•선(善)•인(忍)’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고 전하여 세인이 본연으로 돌아가도록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영화제작기지 대변인 피터 웨이는 말했

다. 세계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화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회와 관중들의 인정과 고무입니다. ‘비밀번호’의 출연배우들은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파룬궁박해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 1위로 선정한 것은 그들이 반박해 주제를 인정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꾸준히 알리는 과정에 이미 많은 서방예술계의 주류인사들이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어 그들이 중국공산당의 상업적 이익의 유혹을 타파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



## 스페인 북부 역사 명승지에서 즐겁게 파룬따파를 맞이하다

2018년 5월 18일, 스페인 파룬궁 수련생들은 초청을 받고 아스투리아스 (Asturias)의 주도인 오비에도(Oviedo)시에 가서 파룬따파를 소개했으며 또 5장 공법을 가르쳐주었다. 현지 시민들은 사전에 알고 충분히 찾아와 파룬궁공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파룬궁공법이 아주 특수하다면서 에너지장이 아주 강하고, 내심은 평온하고, 상서로운 느낌을 감수했다고 표시했다. ◇



## 2018년 4월에 파룬궁수련생 60명이 불법 징역형을 당하다

밍후이왕의 정보통계에 따르면 2018년 4월에 파룬궁수련생 60명이 불법 징역형을 당했다. 그중 신장에서 품팔이 하던 라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싱청(興城)시 송즈강(宋志剛)은 14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월에 파룬궁수련생 64명이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사 30명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중국의 현행 법에 따르면, 신앙은 자유이며, 언론은 자유이다. 파룬궁을 신앙하고, 파룬궁을 전파하는 것은 죄가 없다. 검찰과 판사가 ‘형법’ 제 300 조에 근거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직권 남용 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4월에 중국공산당 법원이 파룬궁수련생으로부터 갈취한 벌금이 83,000 위안이고,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게서 갈취한 현금이 70,000 위안으로 총 합계 153,000 위안이다.

### 휴대폰 하나 분실해, 14년 억울한 옥살이 초래

신장(新疆)에서 일을 하는 라오닝성(遼寧省) 후루다오시(葫蘆島市) 싱청시(興城市)의 송즈강(宋志剛)은 한 가정의 효자로, 사회에서 좋은 사람, 직장에서 노동모범이다. 송즈강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휴대폰을公安국에 반겼다. 휴대폰에 파룬궁에 관한 내용이 저장돼 있었다. 장쩌민의 거짓말에 독해

된 현지 경찰은 악의적으로 송즈강을 해했다. 2017년 10월 24일, 송즈강은 신장 아커타오현(阿克陶縣)公安국에 의해 납치됐다. 며칠 전에 송즈강은 신장 아커타오(阿克陶) 법원에서 불법으로 14년 중형 판결을 당했는데, 상소기간은 겨우 열흘 동안이다.

### 착한 사람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다

4월 중공법정에서는 64 차례의 불법재판을 했다. 그 중 소방 용사 산둥성 핑두(平度)시 파룬궁수련생 가오희바이(高亨柏)도 있다. 가오희바이는 법정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파룬궁(法輪功)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고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응당 무죄로 석방돼야 합니다.”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가오희바이 이웃의 증언을 제시해 가오희바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좋은 사람으로 변했음을 증명했다. 이웃의 증언을 들은 검사는 부득이 가오희바이는 양심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2016년 여름, 가오희바이 맞은편 이웃집에 노화한 액화가스관에서 가스가 새나와 불이 붙었다. 이웃집 사람들은 가스통이 폭발할까 두려워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 겨우 새로 단장한 새 집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했다.



■ 소방 용사 가오희바이와 딸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가오희바이는 이웃집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와 보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 가오희바이는 곧 집으로 들어가 손이 가는 대로 딸의 이불에 물을 등백 적셔 갖고 이웃집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뿔뿔 타오르는 불길을 덮어 한 차례 대형 화재를 막았다.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 장쩌민 집단의 박해는 모든 시비와 선악을 전도하고, 사회도덕을 파괴했으며, 동시에 중국의 법제로 하여금 점점 어둠에 빠지게 해 중국 사회에 추측할 수 없는 손실을 주었다. 모든 중국 사람은 모두 이 한차례 박해의 피해자로 됐다. ◇

## 연변 박해 소식

### 근일 납치됐던 지린성 연변주 투먼시 파룬궁수련생 자이춘메이(翟春梅) 이미 귀가

[밍후이왕] 지린성 투먼(圖們)시 파룬궁수련생 자이춘메이(翟春梅)는 5월 26일 저녁 7시경에 자택에 무단 진입한 투먼시 국보대대의 6~7명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그 중에는 몇 년래 줄곧 파룬궁수련생 박

해에 참여한 전용철(全勇哲)도 있었다. 경찰들은 자이춘메이 집 개인 핸드폰과 사부님 법신상 및 10여권 대법(大法)서적을 강탈했다. 그리고 자이춘메이를 국보대대에 납치해 심문했다. 이미 시간이 아주 늦었는데도 그녀를 감금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다음 날 아침 4시에 자이춘메이를 석방했다. ◇



## 나를 차 밖으로 떠밀다

[밍후이왕] 나는 올해 24 살인데 개인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다. 어느 날 불행하게 큰 재난을 당해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 일은 재작년 새해 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날 사장님은 나에게 아침 일찍이 그와 함께 출발하자고 했다. 차가 개발구 한 공장의 대문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차에서 내려 돈을 받으러 갔다. 그리하여 나는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다. 좀 지나 길가에 출근하는 사람, 학교에 가는 사람들로 점점 많아졌다.

갑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지뢰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 앞부분이 내리 꺼지고 기름 탱크에 불이 났으며 차 문과 바람막이 큰 유리조각이 마구 날렸다. 난 깔려 고깃덩어리처럼 된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큰 손이 나를 차 밖으로 떠밀었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좀 지나 내가 마치 찻물에 빠진 것 같아 깨어났는데 “하느님이며, 차가 망가진 것은 괜찮은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배상하겠소!” 라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떠 보니 사장님이 내 앞에서 울고 있고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렇지만 어디도 아프지 않았다. 단번에 의식을 찾고 즉시 일어났다.

한 쪽 얼굴이 시꺼멓고 한쪽 옷이 시꺼멓고 찢어졌으나 피가 흐르지 않았고 정신도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매우 놀랐다. “이 젊은이 명도 기네, 부처님이 보호했을 거야!” 라고 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차를 쳐다봤다. 차 앞부분은 화물칸과 수평이 됐고 위에 네모난 매우 굵고 큰 철관 하나가 있었다. 케이블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 공중에서 돌리다가 갑자기 밧줄이 끊어져 추락해 차 앞부분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누가 나를 차에서 떠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미 고기전이 됐을 것이다. 정말로 무섭다’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누굴까? 반드시 그를 찾아내 후하게 사례해야겠어!’

이 때 구급차가 왔고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받았다. 부모님, 할머니, 외할머니 등도 병원에 달려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검사하는 것을 봤다. 나는 그들에게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병실에 들어가 시꺼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만지자 파룬따파(法輪大法) 호신부를 발견했다. 나는 온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위험한 시각에 차 안에서 떠밀어준 그 큰 손이 대법 사부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외할머니의 사부님이신데 나도 줄곧 ‘사부님’이라고 불렀다. 대법 사부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 즉시 합장하고 외할머니께 감사드렸다.

외 할머니는 엄숙하게 “내게 감사하지 마라. 온 가족이 안전한 것은 사부님 덕분이니 빨리 사부님께 감사드려!”라고 하셨다. 나는 평소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이 일이 자신의 몸에서 증명됐다!

오후에 종합 검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부모님은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내 두 손을 잡고 격동해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리홍쯔 대사님은 정말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구하는 부처님이시다! 우리는 영원히 사부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 글/ 허더푸(何德福) 자술, 대법제자 정리



### 공안국 내부발언:

“다시 가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밍후이왕] 며칠 전, 우리 지역의 한 수련생이 외지에 가서 진상자료(수십 권)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차 한 대가 길을 막았다.

경찰차에서 몇 사람이 내리더니 택시의 뒤 좌석 문을 열고 진상자료를 담은 가방을 고집어 내 검사했다. 경찰은 수련생에게 자료의 출처를 물었고 수련생은 말했다.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제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가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한 경찰이 수련생을 바라보더니 물었다 “당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수련생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신문출판총서 제 50 호령’을 찾아보세요.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간금지령이 일찍 해제됐습니다. 제가 왜 파룬궁 자료를 갖고 다닐 수 없습니까?”

경찰은 더 말하지 않고 가방의 책을 경찰차에 실었고 수련생은 경찰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차를 타면서 수련생에게 “집에 돌아가서 잘 수련하세요”라고 말한 후 쏜살같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막무가내로 당한 수련생은 마음속으로 경찰도 법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한 수련생의 친척이 공안국으로 출근하는데 그 수련생이 이 수련생에게 공안국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공안국 책임자가 내부회의에서 “우리는 파룬궁의 일을 더 관계하지 마시오. 계속 관계하면 이후에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룬궁을 단죄할 현행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 시끄러움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기에 위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